

행복한 인생 2막이 기다린다

남원으로의 귀농귀촌을 선택해 올해 처음으로 수확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초보 농부들 장마도 끝이 나고 이제는 무더위와 씨름해야 하는 시기로 모두가 힘들어 하는 무더위지만, 유달리 논밭과 과수원에서 자라는 작물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다양한 곳을 뒤로하고 오직 남원만을 외치며 남원으로 귀농귀촌을 감행한 이들이다.

공자의 말을 엮은 논어에 보면 인자요산(仁者樂山)이요 지자요수(知者樂水)라는 말이 있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이 말을 빌리자면, 왜 남원이 최근 귀농귀촌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남원에는 지리산이 있고 요천수가 흐르고 있으니 남원에서 행복한 인생의 2막을 열어보자. 지금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남원에서 열거하는 행복한 삶

남원의 동쪽에는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지리산이 있고, 서쪽에는 아름답게 흐르는 섬진강이 자리하고 있는 남원!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 덕에 우리가 꿈꾸는 농촌 그대로의 모습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

사막한 도시생활에 지쳐 건강한 삶을 되찾고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향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남원은 귀농귀촌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남원시의 귀농귀촌 현황

남원시로 귀농귀촌을 선택한 가구는 2017년

671가구(956명), 2018년 702가구(1,015명)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에도 6월말 현재 350가구(510명)가 남원으로의 귀농귀촌을 선택했으며, 남원시는 올해 작년에 이어 귀농귀촌인 1000명 유치목표를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유입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들의 교육을 준비하고 행사운영은 물론, 정착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응할 수 있는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으로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남원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잠재적 귀농귀촌 최대 수요자인 수도권에 남원으로의 귀농귀촌 홍보를 위해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남원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을 서울, 대전, 광주 등의 대도시에서 진행, 홍보와 상담을 통한 귀농귀촌인 유치에 힘쓰고 있다.



← 도시민 귀농 교육

↓ 귀농귀촌 정책설명회



고향의 기억 떠올리기에 '제격'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예비 귀농인들 소통 창구 마련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등 교육
이사비용 등 추가 용자지원
가족실습농장 ·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 내역

남원시에서는 갑작스런 귀농귀촌으로 인해 적응에 실패하고 역 귀농을 선택하는 도시민들도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귀농귀촌학교, 여성귀농학교,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등의 교육에 힘쓰고, 도시민에게 체험, 실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경험부족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정착 초기 소득기반이 부족한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이사비용(100만원) △주택수리비(500만원 한도) △재거정착금(50만원) △창업자금(최대 3억원) △주택자금(7500만원)까지 추가로 용자지원하는 시책을 준비했다.

▲인생의 행복한 2막을 위한 주거마련 시책

남원시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인 거주 공간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 조성은 물론, 귀농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소규모주택 조성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귀농귀촌인들의 거주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7년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주생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은 지난 6월에 준공이 이뤄졌으며, 현재 주택 10호에 대한 입주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향후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체계적인 영농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살아있는 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6억4000만원을 들여 단지 내 상수도, 배수시설 등을 지원한 주천지구 숲속전원마을은 현재 총 41가구 중 23가구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며 나머지 18가구도 현재 주택신축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41가구 모두가 마을을 이룰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4가구 이상의 귀농귀촌인들이 주택 조성을 희망할 경우, 상(하)수도, 도로포장, 오(폐)수시설 등의 마을 공동기반시설 조성에 5천만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소



↑ 귀농귀촌학교 딸기따기 체험

← 재능기부에 의한 산야초 교육

규모 싼터 조성사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22개소의 싼터 조성되어 있고, 금년에 2개소의 소규모 싼터가 산내면과 주천면에 각각 조성되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남원시는 귀농귀촌인들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머무르며 집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귀농인의 집'도 현재 13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2개소를 산동 · 금지면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

남원시는 물론 귀농귀촌인들이 빠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마을환영회는 물론 주기적인 간담회, 재능기부활동 · 동아리 지원, 귀농귀촌인의 날 제정 등 주민유대강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을 쏟는 등 소프트웨어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후시 모를 갈등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특히 귀농귀촌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부들이 모여 발대환 청년농부연합 '자이'이 청년 한식당-농민 연계행사(농식품부-한식진흥원 주최)에 참여하는 등 남원 귀농귀촌인들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물 좋은 아쿠아틱파크 아마존

아쿠아틱파크 아마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증받은 모악산 자락 지하 500m의 천연 암반수를 사용합니다.

전라북도 최장 280m 길이의 수로식 수영장 **아마존리버**, 워터 슬라이드와 돌고래 · 버섯분수가 동심을 자극하는 **어린이풀**과 **유아풀**, 건강한 물놀이를 위해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해줄 **체온유지물**, 온 가족의 힐링공간 **가족풀**, 시원하고 스틸 넘치는 **사계절설매장**, 구이의 명품 풍광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인피니티풀**까지 **다양한 테마가 가득한 아마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et's Play! AMAZON



Water Play

다양하게 준비된 시설로 즐기는 신나는 물놀이!



Cooking Play

준비해온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카바나 준비



Speed Play

재미와 스릴을 동시에! 신나고 시원한 사계절설매장!



다양한 부대시설

의무실, 마트, 스낵코너, 렌탈샵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어 이용객의 편의성 증대



자유로운 휴식시설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카바나,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선베드 등 휴식 시설로 타 워터파크와는 다른 자유로운

사전온라인예약 가능

네이버 예약을 비롯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장권 사전 구매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사전 구매 시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빠르게 입장 가능합니다.



전북 완주군 구이연항거리 507-2
Tel. 063.279.9292 (10AM-5PM)
www.amazon92.com

단체 및 제휴문의
이메일 : amazon9292@naver.com
카카오톡 : amazon9292

